

엔피·위지웍스튜디오 합병 주주간담회 Q&A

Q1. 합병 없이 엔피 단독으로 주식병합을 통해 상장폐지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나요?

- ▶ 엔피의 경우, 단독 주식병합을 통해서도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기술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은 있었습니다. 다만 주식병합은 규제 대응을 위한 단기적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중 상장 구조 해소, 콘텐츠 IP Full Value Chain 구축, 자사주화 되는 위지웍 보유지분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중장기적 사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 합병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Q2. 금번 정정요구로 합병 일정이 지연될 경우,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시행 전에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있나요?

- ▶ 현재 계획된 합병 일정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시행 전에 절차가 완료되는 일정이며, 합병 일정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일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Q3. 정정요구가 반복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나요?

- ▶ 당사가 판단하기에 정정요구는 합병 자체를 중단하거나 무산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정요구사항에 대해 충실히 보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심사 및 판단은 금융감독원 권한 사항이므로 결과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4. MUA 시장 반응과 수요는 어떤가요?

- ▶ B2C 명상 앱 '무아(MUA)'는 해외에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이 전체 수요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영국·독일·스페인 등 유럽 시장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 ▶ B2B 공간형 솔루션 '무아홈(MUAH)'은 지난 MWC 바르셀로나 2026에서 세계 최초 공개한 이후
해외 기업·기관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스페인 기업 등과 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무아홈(MUAH)'은 5월 한국 쇼케이스를 앞두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본격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Q5. 엔피의 자회사 펜타브리드는 합병 이후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나요?

- ▶ 펜타브리드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마케팅, AI 마케팅 솔루션 및 플랫폼 구축 역량을 보유한 디지털 솔루션 마케팅 기업입니다. 합병 이후 합병법인과 펜타브리드의 디지털 마케팅 기반 역량이 결합될 경우, 합병법인이 그리고 있는 콘텐츠 IP 기반의 Full Value Chain의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